

2017년 4월 18일, 조천읍 조천리 비석거리경로당, 강수경 조사.  
강영자(여, 1936년생, 조천읍 조천리)

- 줄거리: 옛날 어느 집에 배씨 하님을 데려왔다. 글을 모르는 여자 주인이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동그라미를 그려 두었다. 하님을 부르려고 하니 동그라미 모양을 보고 '공서방'이라고 불렀다. 하님은 달려와서 공가가 아니라 배가라고 하였다. 그러니 꼭지를 안 그린 것이라고 하였다.

**[제보자]** 어머니가 곧는 거 보든, 지금은 글을 아니까 글로 알았주만은, 옛날 글 몰른 땐다 그런 대로 지혜로웠젠.

그 어느 집에 하님을 데려오난 공씨를, 아니 배씨를 데려온 거라. 경 허난 남자는 글을 알주만은 여자는 글 안 사람이 별로 잇엇주게. 게난 그 어머니가 웨웁당 잇어 불가부덴 동글락허게 이제 그렁 놔둔 거라. 경 행 이젠 그 하님을 부르젠.

“공서방, 공서방.”

헨 불렀더니, 하님은 돌아완.

“저는 공가가 아니고 배가 올시다.”

허난, 그 또 어머니 허는 말이

“아이고, 꼭질 아니 그려져났구나게.”

**[청중]** : 동글랑헌 건 기리고?

응. 동글랑허게 그리고 꼭지를 안 그려졌구나 해서 그런 대로 살아가는 지혜가 다 잇엇젠.

- 핵심어 : 하님, 공서방, 배서방, 어머니, 공가